

# 교환학생 보고서

|       |                                        |     |          |         |
|-------|----------------------------------------|-----|----------|---------|
| 이름    | 한글                                     | 이호균 | 소속(학부/과) | 신소재공학부  |
| 파견 학기 | 가을학기                                   |     | 파견 국가    | 프랑스 트루아 |
| 파견 대학 | Universite de Technologie Troyes (UTT) |     |          |         |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군 입영을 원하는 기간에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게 되어서, 계획이 많이 틀어지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나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교환학생을 다녀오자는 것이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 및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우선 상대교 서류준비는 학생 회관 쪽에서 무인 발급기로 영어로 된 성적표나 수강증을 발급받아 스캔을 해서 보내야하는 서류가 있고, 그 외에는 상대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번역해서 입력하면 된다. inter semester를 들을 학생들은 본교에서 승인이 난다면 UTT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환학생 입학서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늦게 된다면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 기간과 겹치게 되며, 비자 발급이 수월하게 진행 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승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inter semester를 못 듣게 될 수 있다.

항공권 구입은 미리 하는 것이 싸고 좋겠지만 비자문제 때문에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보기 전에 대사관 면접 예상날짜를 미리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비자 문제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어 수수료를 내야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는 미리 비행기 표를 구매했다가 취소하고, 대사관 면접이 끝나고 예상 비자 발급 일을 안 다음에 편도 티켓을 구매했다. 왕복 티켓이 더 싸지만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 편도 티켓을 구입했다.

비자 발급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캠퍼스 프랑스 대사관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만약 inter semester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입학허가서가 왔는데 비자가 면접이 밀려 기한 내에 잡지 못한다면 다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캠퍼스 프랑스에서 수락되기 전 혹은 수락되자마자 대사관 예약을 잡는 게 중요하다. 캠퍼스 프랑스 면접은 다 같이 앉아서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사관 면접을 예약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다. 면접은 불어학과가 아니면 불어소개나 불어로 답하라는 질문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동기나 과에 대해서 그리고 가게 된 후의 계획을 말한다. 영어 소개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비행기 일정을 앞당겨 작성해야지 빨리 비자를 받는다. 아니면 가기 하루 전에 비자가 오게 되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잘 설명하면 비자를 일찍 입학 허가된 날짜보다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수강신청은 시간표는 안보여주고 수강 신청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듣고 싶은 거 신청하고 정정 기간에다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영어 강의에 박사과정이 섞여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담당 교수가 말해 취소한 게 몇 개 있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교환학생들과 빠르게 친해져서 다른 과목의 시간표나 교수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기숙사는 보통 학교 바로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한다. 푸름 2동에서 디지털 관 거리정도이다. 학교앞 기숙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다 모여있다. 모든 기숙사를 다 봤는데 라 끌레는 2인 기숙사고, 크라우스는 3인실 2인실 섞여있으며 방마다 구조가 모두 틀리다. 개인 방에 개인욕실이 있으며 주방은 공용이다. 개인 방이 큰 호실도 있고, 주방과 테라스가 커서 파티하기 좋은 호실도 있다. 라 끌레는 인덕션이 3개였고, 크라우스 롬바드는 인덕션이 두 개였다. 또 시내와 학교 중간 지점인 아나톨은 개인 원룸 형식이고, 인덕션은 두 개, 욕실도 큰 편이다. 도보로 시내나 학교를 갈 때 20분정도 걸린다. 자전거가 중고로 70유로 밑으로 하니 아나톨 사는 사람은 자전거를 구매해 타다가 중고로 다시 판다. 아침수업을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고 개인룸을 쓰고 싶다면 아나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내 기숙사는 여행을 위주로 다닐 사람들이 자주 신청했다. 트루아 역에서 멀지 않고, 버스로 학교를 다녀야한다는 게 단점이다. 저는 크라우스 롬바드였는데, 퇴사할 때 청소 해야하는 부분을 매우 까다롭게 보며 325유로 보증금에서 불합격 요인에 대한 비용을 차감시킨다. 마지막달 방세는 보통 보증금에서 차감시킨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트루아(Troyes)의 크기는 매우 작다. 파리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파리와 디종이라는 프랑스 도시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비록 작은 도시지만 관광객들도 방문하는 도시이다. 시내 시청 앞 건물 골목이 이쁘고, 파리의 센강이 흘러 트루아에도 흐르는데 강을 따라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는 것 같았다. 따뜻한 날에는 시내 시청앞에 광장에서 식당들이 의자와 그늘을 펴두고 장사를 하는데 매우 여유 넘치는 분위기이다. 9월에서 10월까지지는 해가 8시쯤에 질려고 해서 긴 시간 동안 시내에 있었다. 트루아에는 맥아더 글렌이라는 프랑스에서도 매우 큰 편에 속한 아울렛이 위치해 있다. 이 곳을 찾기위해 트루아에 오는 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학교에서 버스를 한 번 환승하고 가야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곳이지만, 그래도 옷을 사야한다면 할인기간에 한번쯤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점이 있다면 트루아에서 어디를 가고 싶다면 파리를 거쳐서 다른 곳을 가야한다는 점이다. Gare de Troyes는 역이다. 역의 기차로는 30유로로 1시간 정도면 파리 동역을 갈 수 있었다. 또 이 역 주변에 Flix bus라는 버스정류장에서는 약 10유로로 3시간 정도면 파리를 갈 수 있다. 가장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blablacar를 추천한다. 카풀 시스템인데, 동양인을 안 좋아하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타게 되면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회화도 해보면서 승용차를 타고 파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이다. Flix bus나 기차는 Omio라는 앱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티켓을 구입할 수 있고, blablacar는 네이버에 검색 후 로그인후에 메시지를 주고 받고 탈 수 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프랑스어 수업 FA1E, FA1P 프랑스어 가르쳐 주는 언어 수업이다. 하지만 프랑스 교수가 프랑스어로 가르치는 프랑스어 수업이라서 알아 듣기 힘들다. 기초 회화부터 알려줘서 처음에는 쉽지만 점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나, 영어로 소통이 안 되고 프랑스어만 하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시험은 자주 보는 편이다. 시험기간은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알려주지 않아서 자주 물어 봐야한다. 시험을 놓쳤다면 다른 기간에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 수업 방식은 프랑스어로 가르쳐주면서 학생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이것, 저것 시키면서 진행한다. 수업은 일주일에 각각 3시간이며 한번은 쉬는 시간 없는 2시간 수업을 한다. EV02 환경경제학은 영어로 진행하지만 교수가 영어가 서툴러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프랑스어로 진행을 한다. 엑셀로 그래프나 차트를 만드는 수업도 있고, 이론수업을 하다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수요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시킨다. 시험은 중간 기말 두 번 진행하며 문제는 서술식 계산문제와 이론문제 위주이다. EV13 환경공학은 과제가 두 개 있고, 중간에 시험 기말엔 ppt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어 이해하기 쉬웠고, 중간 중간에 출장강사가 오셔서 설명해주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강의였다. NT01은 우리학교의 전자재료 수업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다. 영어로 진행되며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수강한 사람

들에게 후기를 물어보니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다. NS01은 신청했으나 오리엔테이션때 교수님과 대화해보니 박사과정이라며 취소하는 게 좋을꺼라고 하셔서 취소를 했다. 랩 투어가 있고 ppt를 만드는 내용의 수업이었다. 마지막으로 NO01은 광학이고 내용은 어렵지 않았으나 중간 레포트가 프랑스어로 진행이 되어서 할 수 없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350유로에서 지원금 87유로를 뺀 263정도였다. 내가 지낸 기숙사는 크라우스 롬바드이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는 다른 시내 기숙사나 아나톨 기숙사의 요금이 비싸나 지원금이 더 나와 결과적인 금액은 비슷하다고 한다. CAF신청이 까다롭지만 신청을 확실하게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CAF를 신청한 후 추가 서류를 시내에 있는 CAF사무실에 제출하고 일정기간 후에 들어온다. 모바일 앱이 있으니 들어오는 지원금 확인은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또 학교 기숙사 롬바드 크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파이가 잘된다. 와이파이파이는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형식이며 이 내용은 추후 이메일로 온다. 라끌레(la' cle)는 와이파이파이가 되나 빠르지 않아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들었고, 아나톨은 와이파이파이가 아예 없다.

생활비는 교내 학식으로 베트남 집이 있는데 매일 메뉴가 틀리고 요일마다 메뉴가 같은 형식이다 3유로로 메인 하나를 고르고 면이나 밥을 고르는 형식이다. 이 집이 가장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른 피자집이나 타코집도 가끔 먹으면 괜찮지만 가성비가 베트남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밥은 식기를 룸메와 나눠서 최소한으로 사고 큰 쇼핑을 할 때는 까르푸를 8번버스를 타서 까르푸를 가고 그 외에는 걸어서 10~20분거리에 있는 E.Leclerc 이나 다른 마켓을 가면 된다. E.Leclerc은 차도를 가로 질러가야 시간이 약 30분 단축된다. 가는데 안전하지 않다. 그 외에 학교에서 가까운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마트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에 학교를 가면 주는 책자에 나와 있다. 고기의 종류는 그 마트에 더 많아서 육류를 사러갈 때는 그 곳을 추천하고 일렉(E.Leclerc)은 바게트나 다른 물품을 구매하려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1유로 정도의 부드러운 바게트가 맛있었다. 일렉은 자주 갔지만 그 외 다른 마트는 한번 가본 것이 끝이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괜찮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까르푸에서 삼겹살 4줄에 3유로에 파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까르푸에서 파는 술이 면세점보다 싸다. 만약 기념품으로 술을 사야한다면 면세점 보다는 까르푸에서 구매하여 캐리어에 넣고 귀국을 하면 좋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매 학기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를 알리는 ppt를 진행한다. 미리 만들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몽생 미셀이나 크리스마스마켓을 버스를 대여해 학생들끼리 가게해주는 투어도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다. 2019년 가을학기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은 포항공대 4명, 국민대 2명, 서울과기대 1명이였다. 그 외에 중국학생들이 다수 있었고, 내가 아는 학생들은 대만, 브라질, 스웨덴, 이탈리아등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 헬스장이 있다. 문 닫는 시간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주말엔 문을 닫았고,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니 자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체육관내에 농구코트나 암벽등반 시설이 크게 갖춰져 있다. 관심 있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본교에서 수락이 나면 빠르게 입학 신청서를 작성한다. UTT에서 이메일이 오기까지 기다린다면 intersemester 수업을 듣지 못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 안듣고 간다면 이미 교환학생들끼리 그룹이 지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좀 더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또 왓츠앱(해외 카톡같은 소셜네트워크 메신저 어플)을 깔아서 번호 교환을 하고 그룹채팅이나 개인 채팅 주고 받자. 유심칩은 프리모바일 한달 권을 끊고 온라인으로 연장가능하다. 나는 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매 했을 때 주는 영수증에 아이디와 비번이 있으니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하길 바란다. 매달 돈이 나가는 옵션을 하면 해지할 때 우편을 작성해야함 이게 상당히 손이 간다. 19.99유로는 매달 약 100기가 프랑스에서 사용가능하고, 50기가 로밍 데이터를 미국이나 캐나다 포함 다양한 유럽외 국가에서 이용가능하다. 9.99유로 상품은 프랑스에서 50기가 사용가능하고 다른 유럽지역에서는 4기가 사용이 가능하다. 터키나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항공권은 왕복권이 싸므로 왕복권을 많이 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편도로사고 추후 일정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유비행기로 왔다. 그리고 김준범 교수님이라고 한국교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분 매해 달라지니 무엇인지 알아본 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또 수강하지 못했더라도 교수님에게 연락을 하면 반갑게 맞아주며 한국 교환학생과 교류 가능하며 교수님과 이야기가 가능한 파티에 초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일처리가 매우 느린 편이니 예상해야한다. 한 가지 예시로 지인이 프랑스 계좌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10월에 은행에 갔으나 1월까지 나오지 않아 1월에 재촉해서 계좌 발급을 받았다. 계좌를 발급받으면 학생이라 80유로가 계좌에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 ISIC국제학생증 발급으로 여러 유럽국가 미술관에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과, 프랑스의 많은 미술관이나 관광지에서는 학생비자를 보여주면 무료인 곳이 많으니 돈 주고 들어가지 말자.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교환학생을 하면서 같은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 학생이나, 프랑스학생들, 다른 지역에서 온 교환 학생들과 이야기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했던 마음이 풀렸다. 또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오는 한국 대학생들이나 타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대학생 만나보며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즐거웠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를 들으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고치고 싶었던 안 좋은 습관을 몇 가지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을 적게 하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